



김시원 작가 개인전 '동심(洞心): 인더메모리' 전시 모습.

/오지현 기자

# 잊고 있던 마음 속 순수성 깨운다

김시원 '동심: 인더메모리'  
작가 애착인형 '개순이' 모티브  
아이 상상력 반영한 색감 눈길  
내일까지 금호갤러리 2·3관

바닷속 신기한 성에서부터 고즈넉한 시골의 버스 정류장까지. 동심을 작품 속에 녹여내며 아이들의 마음으로 상상한 다양한 것들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김시원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2, 3관에서 열린다.

'동심(洞心): in the memory(인더메모리)'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애착인형인 '개순이'를 모티브로 그간 그가 작업했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작가의 애착인형이었던 개순이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탄생한 이번 작품들은 어렸을 적 아이였던 작가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반영하듯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인다.

아이의 관점으로 상상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상상 속 세계도 등장한다. 바닷속 아

래 인어공주의 성을 연상케 하는 궁전에선 우리나라 전래동화 속 별주부전의 주인공인 자라와 토끼가 한 자리에 있다.

모든 작품에서 작가의 애착인형인 개순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재밌다.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캐릭터와 항상 붙어다니는 개순이는 활짝 웃는 미소에 양 볼에 박힌 두 하트 특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은 작가 자신을 반영한 캐릭터는 큰 두 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표정을 그려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활짝 웃으며 윙크를 하며 행복을 전달하는 개순이와 대조적으로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있는 이 캐릭터는 무표정하다 못해 슬퍼보이기도, 섬뜩해보이기도 한다.

이에 김 작가는 "인물의 표정은 보는 이들의 상상에 맡겨 각자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코와 입을 배제하고 눈만 그려 넣음으로써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자연스레 그 캐릭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도록 한 것이다.

밝은 색감과 단순한 형태의 개순이와 대비되는 캐릭터의 모습이 생경해서일까, 아니면 이미 어른이 되어 세상에 치이며 사회의 잣과 귀 일부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이제 상상이



김시원 작 '버스정류장'

나 공상, 허구와 미래, 희망과 그 모든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돼서일까. 팬스레 표정 없는 그 두 큰 눈이 이제는 유년 시절을 그리워함과 동시에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느끼는 허망함이 깃든 것 같기도 하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의 동심은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뜻의 동심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뜻의 동심, 즉 동음이의어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하고자 했다"라며 "현실과는 조금 다른,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을 반영한 상상 속 이미지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속 순수성을 깨우고 싶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잊고 있었던 순수함을 들여다 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아시아 문학축제 맛보기 '미리 만나는 아시아문학'

9월 29일까지 7개 프로그램  
ACC·전남대·조선대서 진행

오는 10월 열리는 제4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사전 행사 '미리 만나는 아시아문학'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가 개최하는 '미리 만나는 아시아문학'은 ACC와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 개최된다. 9월 29일까지 강좌·대담·작가와의 만남 등 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미리 만나는 아시아문학'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재해석되는 아시아의 근대, 질병, 재난과 이산, 국가폭력, 차별과 혐오 등의 문제를 아시아적 시각으로 접근해 다양한 문학적 주제로 풀어낸다.

먼저 소설가 김남일이 지난 9월 ACC 문화정보원에서 '동아시아의 작가들이 처음 만난 근대의 얼굴'을 주제로 강좌의 문을 열었다.

오는 23일 조선대에서 열리는 소설가 심윤경의 '인류가 마주한 폭력과 갈등의 맨얼굴: 동유



심윤경

립 작가들의 목소리' 강좌에선 동유럽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마주할 수 있다.

질병을 제압하는 중국의 독특한 방식을 알아보는 강좌도 마련했다. 목포대 신정호 교수가 오는 7월 7일 ACC에서 '중국의 감염 질병

과 역(易)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어 명지대 광형덕 교수가 '아시아,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기록하다'를 화두로 같은 달 21일 ACC에서 오키나와 문제를 다룬다.

동아대 손석주 교수의 '마술적 사실주의로 풀어내는 인도네시아의 현대사 그리고 알반 광의 시'는 오는 8월 25일 ACC에서 만날 수 있다.

조국을 떠나 이주민의 삶을 살아온 재일 시인 김시종의 시 세계를 대담으로 엮은 행사도 준비했다.

사전 행사는 작가와 만남으로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최진희 기자

# 광주시립극단, 10월 21일까지 창작희곡 공모

광주시립극단이 대표 레퍼토리 개발 및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해 제2회 창작희곡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광주·전남을 소재로 10분 내외 공연이 가능한 창작 희곡으로, 오는 10월 21일까지 약 4개월 간 응모 가능하다.

지역과 상관없이 신인·기성작가 모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순수 창작물로 신춘문예, 문예지 등 어떠한 지면(인터넷 매체 포

함)에도 발표되지 않고 공모 및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낭독 및 워크숍 등을 포함한 각종 공연에 출품되지 않은 것만 응모할 수 있다.

극단은 1편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 오는 11월 25일 발표한다. 상금은 1,000만 원이다.

공모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gjart.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활용 지원사업' 추진

전남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내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2022 문화기반시설 활용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수행단체를 선발해 지원하며, 공모 유형은 '공간지정형'과 '공간발굴형'으로 구분된다. 공간지정형은 재단에서 지정한 공간 중 1곳을 선택해 접수하면 되며, 공간발굴형은 단체가 사업 목적에 맞는 공간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유형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강진 아코코공연연습센터', '보성 차품평관', '신안 김환기 고택 부속창고', '장성 임권택 시네마테크'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곳들을 공간으로 선정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주 주소를 전남도에 두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으로서 개인의 경우 팀으로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수행단체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이행 능력, 프로그램 운영 역량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오지현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